문화산책

언어는 인격과 품격을 드러낸다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평론분과 회장

비평가로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검토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언어는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도 하다. 수준이 떨어지는 작품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원인이다. 그동안 읽었던 책이나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배운 작품을 기준 삼아 '문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단정한 채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문학 매체의 폭발적인 증가 또한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작가들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격이 낮은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경우,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형식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시·소설·에세이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작품을 쓸 수 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상상력이 풍부해도 문학 형식에 밝지 못하면 좋은 글을 쓰기 어렵다. 축구장에서는 축구의 규칙을 지켜야 하듯, 배구장에서 축구하듯 발로 공을 차서는 안 된다. 장르마다 고유한 형식이라는 규칙이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형식에 앞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형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용이 빈약하거나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면 좋은 글이 될 수 없다. 결국 형식과 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처럼 미흡한 글을 접할 때면 나는 그 글을 통해 필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글을 통해 지식을 과시하려는 태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구조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 글 전체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좋은 글은 글자 하나를 더하거나 덜어내도 안 될 만큼 치밀해야 한다. 미숙한 글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문제는 불필요한 사족이다. 더 좋은 표현을 보태고 싶은 욕심이 오히려 글을 망치고 만다. 이러한 문제는 꾸준한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스스로 깨우치거나,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교정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시인들에게서 두드러지는 잘못은 현학적 표현에 지나치게 기대는 태도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멋있는 표현을 좇다 보면 정작 무엇을 말하려는지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다. 나는 글쓰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존재의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문학적 지향을 분명히 세우기란 쉽지 않다. 글쓰기는 결국 자신이 설정한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기도 하다.

글쓰기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식상하고 진부한 표현을 삼가는 일이다. 예술은 본질적으로 새로움을 지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가 지닌 질감과 색채를 새롭게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어머니'를 소재로 글을 쓰는 경우, 사랑이나 희생 같은 상투적 표현에 기대기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학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하듯 예술가의 언어 또한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

좋은 글은 곧 그 글을 쓴 사람 자신이다. 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쓴 글을 보면 너희 고향마을 뒤에 있는 산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곤 했다. 글은 사람의 인격과 정신성을 드러내는 표지이기 때문이다.

어쩌다 보니 글쓰기 강의를 한 셈이 되었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글의 무례함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된 오늘날, 소통 방식 역시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편지나 전화가 주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다수가 동시에 소통한다. 문제는 그 공간에서 소비되는 언어들이다. 중요한 정보나 공지를 위한 공간에 사적이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기도 한다. 문학인들 사이의 네트워크에서도 편향된 정치적 주장, 개인 사업 홍보, 성찰 없이 과시하는 지식 등이 소통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눈치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예의 없는 언어를 접할 때마다 그 사람의 정신성과 문학적 수준을 가늠하게 되며, 같은 문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문인들의 작품은 물론,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역시 인간적 품격을 보여준다. 때로는 침묵이 말을 대신해 그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한다. 반대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밑천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엊그제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다. 명절이 되면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나는 명절이면 고마운 분들께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덕담이 대량으로 쏟아질 때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다.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말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자체는 분명 덕담이지만, 그것이 형식에 그칠 때는 공허해진다.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언어는 폭력이 될 수 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의식 속을 파고드는 무자비한 언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혹은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지도 모른다.

자신이 내뱉은 말은 곧 자신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낸다. 우리는 말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기고

예술, 이제는 '지원'이 아니라 '구조'다

최혜지
아르플래닛 대표

광주는 문화예술 도시로 불린다. 해마다 다양한 지원사업이 공고되고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 청년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적지 않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예술을 지원하고 있는 도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나는 청년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공연은 한 번으로 끝나고 프로젝트는 단발성으로 마무리되어 다음 무대를 기약하기 어렵고 활동 이력은 여기저기 흩어진 채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지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이후를 이어주는 구조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광주에서 공연을 기획하며 여러 차례 무대를 만들었다. 기획, 섭외, 홍보,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은 문제는 재능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훌륭한 예술인은 많고 공연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공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둘이 만나는 과정은 여전히 개인의 인맥, 우연한 기회, 비공식적인 경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구조에서는 '아는 사람'이 기회를 얻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주변을 맴돈다. 청년예술인은 실력을 증명할 기회 자체를 얻기 어렵고, 기관은 적합한 예술인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 서로가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만나는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지원은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구조는 지속을 가능하게 한다. 한 번의 공모 선정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활동 기록이 쌓이고 그것이 신뢰가 되어 다시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지금 우리 예술 생태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속의 설계'다. 문제는 이 구조의 부재가 결국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연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 예술인은 창작을 넘어 기획과 행정, 계약과 정산, 홍보와 관객 개발까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많은 청년예술인이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그 작품을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과정을 배울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또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다.

예술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나를 구조에 대한 고민으로 이끌었다. 단순히 한 번의 무대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 활동이 기록되고 연결되며 다시 기회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래서 현재 예술인과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아트플로'를 준비하고 있다. 예술인의 활동 이력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그 기록이 신뢰가 되어 기업과의 협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려는 시도다. 개인의 인맥이 아니라, 기록과 투명한 정보 위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

물론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같은 어려움은 반복될 것이다. 지원은 앞으로도 필요하다. 다만 그 지원이 일회성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인의 경력과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광주가 가진 문화적 에너지와 자산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충분히 연결되고 축적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그 가능성이 구조 속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할 때다. 제작비 지원을 넘어 기획과 행정을 배울 수 있는 멘토링 체계, 협업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장기 프로그램, 활동 이력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예술은 '가능성'이 아니라 '지속'이 된다. 예술은 지원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은 구조 위에서 완성된다. 이제는 그 구조를 함께 설계할 시간이라 생각한다.

취재수첩

이제 '안전 끈' 다시 잡아야

송태영
사회부 차장대우

5일간의 설 연휴 기간 화재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명절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방심이 사고를 부른 것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순천시 승주읍과 곡성군 오산면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했다.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고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이 여전함을 다시 확인시켰다.

같은 날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로 30대 거주자가 손목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바닥과 벽면 일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 추산 6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실내 흡연 후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16일에는 광주 동구 금남로5가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나 7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데크와 에어컨 실외기 일부가 소실돼 5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 역시 담배꽁초 불씨가 가연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산불과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는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는 체감도가 유독 높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남지역 산불은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 늘었다. 같은 기간 광주·전남 지역 담배꽁초 부주의 화재는 32건(광주 2건·전남 30건)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1.5일에 한 번꼴로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겨울은 다른 계절보다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불은 기후 위기와 맞물리며 대형화·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대응이 늦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지자체와 소방당국은 산불진화대 운영, 취약지 점검, 예방 캠페인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경각심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담배꽁초 하나, 부주의한 난방기 사용 하나가 이웃의 삶터를 위협할 수 있다.

우리는 한 해에 두 번 새해를 맞는다. 양력 1월 1일과 음력 설날이다. 새해 결심이 흐려질 즈음 찾아오는 설은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는 또 한 번의 출발선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도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다. 명절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냈다면, 이제는 각자의 안전 수칙을 세울 차례다. 작은 실천이 모여 비로소 안전한 일상이 완성된다.

사설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됐지만 과제도 많다

2026년 2월 19일, 마침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내린 것이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이뤄진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해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 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즉,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군을 국회로 보내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다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한 사정, 고령인 점을 들어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형이 내려졌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날 선고는 대통령이라는 자리, 군 통수권자라는 권한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권력의 남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도 됐다.

이번 판결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한 챕터는 일단락됐지만 해결 과제는 여전하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이를 발본색원하고 엄중 처벌해 다시는 이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 그리고 얼마 안 돼 사면까지 한 전두환의 그릇된 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도 시급하다.

무엇보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극명하게 표출된 둘로 나뉜 국민들을 어떻게 화합시키고 힘을 모아갈 지도 남겨진 숙제가 되고 있다.

전남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절실하다

전남도가 국가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남의 뛰어난 산업 인프라를 내세우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지형을 남부권으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 설치 근거도 담아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남부권 반도체 거점으로 도약할 기회로 보고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거점이 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전남이 물·전력과 물류·부지 확보가 유리하고,수도권 과밀의 전력망 포화·안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 조건을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컨대 반도체 팹 6기를 가동하려면 하루 107만t의 용수와 9.3GW의 전력이 필요한데 수도권은 용수 여유분이 0.9%에 불과하고, 송전망 포화로 전력 공급 역시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이행 부담까지 감안하면 입지 경쟁력은 취약한 편이다. 반면 전남 서부권은 영암호·금호호·영산강호를 통해 하루 130만t 이상의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17.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도 구축돼 있어 RE100 이행도 거뜬하다. 전력·용수·RE100이라는 3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를 갖췄다는 얘기다.

또 무안국제공항, 광양항 등 항공·해상물류와 연계된 복합 물류 네트워크와 수도권 과밀 대안 및 안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미국·대만 등 주요 반도체 강국들도 분산형 클러스터 전략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증설되는 팹이나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전남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반도체 클러스터 전남 지정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40	논설실	370-7200
경제부	370-7020	임원실	370-7000
산업부	370-7010	총무국	370-7093
사회부	370-7030	사업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고국	370-7070
편집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진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